

설문대 할망 신화의 변용과 송당 신화

김진하*

차례

1. 서론
2. 창조의 여신 설문대 할망
3. 설문대 할망의 죽음과 부활
4. 송당 신화의 거신들
5. 결론

1. 서론

태초에 천지는 혼돈 상태였다. 하늘과 땅이 뒤섞여 나누어지지 않았고 어두움과 빛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다. 그것은 완전한 어두움도 완전한 밝음도 아니었다. 이 혼돈의 천지에 새벽의 기운은 저절로 스며들었다. 하늘과 땅이 생기고 동서남북으로 별이 돌아났다. 아직 여전한 암흑 속으로 천황담, 지황담, 인황담이 울며 동이 텄다. 이때 하늘의 천지왕이 해도 달도 들을 내보내 천지는 활짝 개벽이 되었다. 옛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천지왕 본풀이>¹⁾를 보면 태초에 하늘과 땅이 열리고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이루어지고 동서남북의 방위가 열린 것은 자연 그 자체의 운동으

* 양정고등학교

1) 현용준, 《제주도 신화》, 11-21쪽.

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는 않았다. 이 세상으로 해도 두 개, 달도 두 개를 보내어 최초의 개벽을 이룬 것은 천지왕이었지만, 아직 세상은 불완전했다. 그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두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을 보내어 질서를 잡게 했다.

제주의 무속신화 중에서 일반신화를 보면 <천지왕 본풀이>의 천지왕이 창조주이다. 세계 창조의 신은 잘 알려진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르고 <구약성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다. 또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르면서 유사한 여러 형태의 창세 신화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신화체계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제주무속신화의 경우 <천지왕 본풀이>가 곳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근원적이면서 보편적인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다소 추상적인 천지왕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창조의 여신을 모시고 있기도 했다. 설문대 할망이 그 신이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섬의 자연을 만들어낸 창조의 여신이다. 설문대 할망의 이야기는 신화적인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제주의 오름과 들판과 바다의 곳곳마다 갖가지 전설을 만들어내면서 제주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 이 거대한 여신은 어느 한 곳에 특정한 숭배의 신전을 갖지도 못했고 제주에 흔한 본풀이(서사무가) 한 편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제주사람들은 제주의 자연을 대하면서 익숙하게 이 거신을 대지모신처럼 떠올렸다.

번듯하게 신성으로 모셔지지는 않았으나 제주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설문대 할망의 신화들은 단편적이었던 만큼 진지한 탐색이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여신의 이야기는 거신 설화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신화 이후에 전개되는 당 신화에 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제주도 신당의 원조로 인정받는 송당 본향의 신화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영향과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파편적인 민간의 전설로나 치부되었던 거신 설화가 어떤 모습으로 신당 본풀이 속에 수용되었는지 살피고, 거신 설화에서 당 신화로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창조적 여신 설문대 할망

제주도의 신화라고하면 누구나 쉽게 설문대 할망을 떠올릴 정도로 그 이름이 친숙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거신의 이야기들이 채록된 것은 기껏해야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지형전설로 채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현용준의 《제주도 전설》에 실려 있는 단편들과 장주근의 《풀어쓴 한국의 신화》에 실려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진성기의 《제주도 전설》에 실려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세 가지 기록들은 제주 민속연구의 태동기에 설문대 신화를 정착시켰다는 데 먼저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상의 단편적인 채록들을 하나의 창조신의 신화로 묶은 고대경의 《신들의 고향》에서의 작업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채록된 설문대 할망 관련 신화들을 보면 정교한 이야기나 긴 사설을 가진 것은 아니고 몇 가지 행적에 대한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대 할망 이야기들은 특징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지는데, 일찍이 현용준은 채록자별로 나열한 적이 있고²⁾, 장주근은 할망의 크기, 할망이 한 일, 기타 등으로 나누어 단편들을 모은 적이 있으나³⁾ 그것 역시 자세한 분석이나 논의는 없다. 본고에서는 이를 더 세분하고 진성기 본⁴⁾에 추가된 것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거신 설문대

설문대 할망의 첫 번째 특징은 매우 키가 큰 거신이었다는 것이다. 그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제주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였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섬의 한가운데를 차지한 한라산만큼이나 컸다. 아니 그 한라산을 만들 정도로 컸다. 할망과 관련된 전설들을 읽어보자.

2) 현용준, 《제주도 전설》, 22-26쪽. 현용준은 '선문대 할망'을 표기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전히 구술자에 따라서 '설문대'로 하는 경우도 존중하여 기록하고 있다.

3)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13-16쪽.

4) 진성기, 《제주도 전설》, 26-27쪽.

옛날 설문대 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게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고 한다.(현용준, 22쪽)

얼마나 키가 컸으면 한라산 꼭대기에 머리를 두고 발끝이 관탈섬에까지 닿았을까. 할망의 크기는 제주의 북쪽으로 길게 드리운 검은 장마 전선 만큼이나 거대했을 듯하다. 그런데 한라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할망의 크기는 그냥 바닷물에 닿았다는 채록도 있다.⁵⁾ 그리고 제주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동쪽 지형을 기준으로 할망의 크기를 짐작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키가 커서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사이를 한 걸음에 내디뎠다고도 한다(현용준, 24쪽). 서쪽 사람들이 보면 또 나름의 기준이 설정된다. 서쪽에서는, “한쪽 발은 한라산을 딛고, 한쪽 발은 안덕면 산방산을 딛고 앉았다 한다.”(현용준, 25-26쪽).

이런 설화들을 종합해보면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느 쪽으로든 눕거나, 두 발을 벌리고 설만큼 거대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제주의 어디에서나 보이는 한라산, 시계(視界)의 끝에 서 있는 한라산을 한번에 덮어버리는 거대한 존재이다. 할망이 드러누우면 그 할망의 몸이 바로 제주섬 자체가 되는 듯하고, 두 다리를 버티고 서면 제주섬을 감싸는 거대한 대기처럼 느껴지는 존재이다. 달리 말하면 설문대 할망은 제주에 사는 사람이면 어디에 서 있든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때 제주사람의 상상 속에서 제주섬은 그 자체만으로 온전한 하나의 우주이며, 한라산은 그 우주의 중심이 된다.

2-2 빨래하는 신

설문대 할망의 설화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유독 빨래하는 화소가 많다는 것이다.

5) 장주근, 위의 책, 14쪽.

옛날 설문대 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빨래를 하려면 빨래를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에 놓아 발로 밟고, 팔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빨래를 문질러 빨았다 한다.(현용준, 22쪽)

설화에서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은 할망의 크기를 말할 때도 나오고 빨래를 할 때도 나온다. 빨래를 하는 화소 역시 할망의 키높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어찌서 하필이면 빨래인가 하는 것은 한국의 여타 신화나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신화와 비교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할망이 빨래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할망은 빨랫감을 손으로 빨지 않고 발로 비볐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어찌면 제주 사람들이 할망의 손은 볼 수도 없고 다만 그 발끝이나마 조금 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에서 나온 상상으로 보인다. 어찌든 방향에 따라서 “한 발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가파도로, 또 한 발은 동북쪽에 있는 성산 일출봉을 딛고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장주근, 14쪽)고도 한다. 또 다르게는 “한쪽 발은 한라산을 밟고 한쪽 발은 소섬을 밟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 한다”(현용준, 24쪽)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가장 광대하게 상상을 펼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쯤 될 것이다.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고 앉고, 한 쪽 다리는 관탈에 놓고, 또 한쪽 다리는 서귀포 앞바다의 지귀섬이나 대정읍 앞바다의 마라도에 놓고 해서 성산봉(일출봉)을 구시통(빨래바구니)으로 삼고, 소섬(우도)은 팡돌(빨랫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현용준, 23쪽) 하기도 한다.

여자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장 여성적인 일거리 중 하나로 쉽게 떠오르는 빨래하는 일이 설문대 할망에 대한 설화에 삽입된 것은 제주섬을 둘러싼 바닷물(빨래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도 거인에 대한 상상이 하필이면 빨래인가 하는 점은 명확하지 않다.

한편, 그밖에 여성의 모습으로 길쌈질 하는 설문대를 상정한 지형 설화도 있다. 성산 일출봉의 많은 날카로운 바위 봉우리 가운데 하나는 길쌈하던 할망이 등잔을 놓았던 곳이라 하여 등경돌(燈繫石)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또 애월면 곽지리에 있는 세 개의 바위는 할망이 솥을 얹혀 밥을 해 먹었던 곳이라는 설화도 지형 전설에 속한다.

2-3. 한라산과 오름 만들기

한라산을 베게 삼아 드러눕기도 하고 한라산을 디디고 서서 빨래를 하기도 한 설문대 할망은 제주섬에 산재한 오름들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그 말은 설문대 할망이 제주섬을 다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제주도에는 많은 오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오름들은 할머니(설문대 할망)가 치맛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 흘러서 된 것이라고 한다.(현용준, 22쪽)

그런데 할망은 치맛자락에 흙을 담고 어디로 가던 길이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한라산이었다. 이 설화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맥락상 설문대 할망은 혼자서 한라산을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장주근의 채록에는 “치마폭에 흙을 담아서 쏟아 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었고, 동시에 치마폭의 뚫어진 구멍들에서 쏟아진 흙들이 한라산 기슭의 여기저기에 산재하는 오름들이 되었다.”(장주근, 14-15쪽)고 적고 있다.

거대한 여신이 홀로 끙끙대며 흙을 날라다가 한라산을 만드는 장면을 상상해보는 일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하다. 태초의 세계를 힘들여 창조하는 창조의 여신의 노력이 생생히 전해온다. 구전에 따라서는 맨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삽을 써서 한라산과 오름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아무래도 창조의 원초적인 모습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 흥미가 반감된다.

한편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과 오름뿐만 아니라 섬들도 만든다. 그중에서도 소섬(우도)이 만들어진 사연에는 할망의 강력한 오줌발이 관련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할망은 한쪽 발은 성산 일출봉을 디디고 또 한 발은 성

산면 오소리 식산봉에 디디고 앉아 오줌을 누었는데, 오줌줄기가 얼마나 힘찼던지 땅이 깨어지고 큰 강물을 이루어 흘러 나갔다. 이때 섬의 한 자락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소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과 오름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실상 설문대 할망이 제주섬을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설문대 할망이 진정 창조의 여신인 까닭은 하나의 세계로서 제주섬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할망은 제주섬을 하나의 완전한 세상으로 창조해놓았다. 한라산을 베게삼아 누었다는 말은 한라산이 할망이 창조한 세계의 중심임을 뜻한다. 옛 제주사람들에게 한라산은 섬의 중심이면서 우주의 중심이었을 것이다.

2-4. 육지와 다리 놓기

태초에 홀로 제주섬을 만들고, 한라산을 베게삼아 드리누워 바다에 발을 담그고 길쌈도 하고 빨래도 하는 설문대 할망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웅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혼자서 소꿉놀이하는 계집애처럼 소박하고 쓸쓸하기도 하다. 거기에는 아직 어떤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다. 다만 홀로 유일한 존재로서 세계 창조를 한가한 유희로 즐기는 모습이다. 이런 광경은 평화롭기는 하지만 단조로워서 어딘가 풍성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설문대 할망이 만들어 놓은 제주섬이 세계의 중심도 아니고 그다지 완벽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그런 인식의 발생은 설문대 할망 신화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었다. 사람들은 제주섬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더 넓은 육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주섬이 불완전하다는 인식은 제주섬에 대한 불만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섬이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더 큰 육지에 비하면 주변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 설문대 할망에게 육지와 연결시켜 달라고 조르게 된다.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 놓으니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

곳을 한 벌만 만들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속곳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명주 1백통이 든다. 제주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통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속곳은 만들지 못했고, 할망은 다리를 조금 놓아가다가 중단하여 버렸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 신촌리 등 앞바다에 있다 한다. 바다에 흩어 떨어진 여(바위줄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현용준, 22-23쪽)

설문대 할망이 제주섬을 육지와 잇는 다리를 놓다가 만 곳은 조천과 신촌 앞바다의 '영장매코지'라고 한다. 하지만 어찌면 할망이 어디서부터 다리를 놓기 시작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한림 앞바다이든 조천 앞바다이든 육지를 향해 북쪽으로 뻗어나간 바닷가의 바위줄기들은 모두 설문대 할망의 전설과 이어 붙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제주사람들이 제주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땅과 이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설문대 할망의 권위도 추락할 것이다. 위의 얘기의 앞머리는 제주사람들이 더 큰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인식이 제주에 대한 불만을 낳게 하였으며, 그래서 설문대 할망에게 다리를 놓아달라는 요구나 소원을 빌게 된 사정이 삭제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할망에게 다리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할망의 권위는 손상되고 만다. 그것은 할망이 만든 제주도라는 세상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발견, 다시 말해 이 섬이 완전하지 않다는 인식의 발생인 것이다.

위에 인용된 이야기는 이런 불완전과 결핍에 대한 가장 빼어난 서술이다. 다시 말해 이 얘기는 완전히 결핍의 서사이다. 첫째, 제주사람들은 섬이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육지와 이어지지 못한 불완전한 세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에 빠진다. 둘째, 설문대 할망은 자신의 속곳조차 제대로 해 입지 못할 만큼 궁핍한 존재이다. 키가 너무 커서 옷을 제대로 해 입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키가 큰 것이 자량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요소가 되어버렸음을 의미한다. 셋째, 제주 백성들이 할망의 속곳을 만들기 위해 명주를 모았으나 99통밖에 되

지 못한다. 그것은 경제적 한계이기도 하고 원초적 불운이기도 하다. 넷째, 할망은 다리를 놓다가 그만 뒤 버리는 바람에 미완으로 중단되고 만다.

제주섬을 만들고 유유자적 제주섬에서 놀던 이 거대한 여신의 위세는 '다리 놓기'대목에 이르면 이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로 격하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거신은 권위를 상실하여 소멸해갈 것이다.

3. 설문대 할망의 죽음과 부활

3-1. 설문대 할망의 키 자랑

현용준과 장주근이 채록한 설문대 설화의 화소들을 행위의 양상으로 정리해보면 거의가 섬의 창조와 심심한 놀이,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로의 격하라는 순서로 그려진다⁶⁾. 거기에 덧붙는 것이 설문대 할망의 죽음인데,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의 불완점함을 깨달은, 혹은 인간들에게 들켜버린 거신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소멸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설문대 할망의 죽음에는 어떤 역설과 모순이 존재한다. 할망은 자신이 만든 세계의 불완전성 때문에, 혹은 자신의 불완전성 때문에 죽어간다. 할망의 죽음에 대해서는 현용준과 장주근 두 사람이 채록한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설문대 할망은) 하도 키가 큰 것이 자랑이어서 제주시에 있는 용담물이 깊다기에 들어서 보니 발등까지밖에 안 찼다. 다음에 서귀포 서흥리 앞바다의 홍리물에 들어 서 보니 겨우 무릎까지 찼다. 마지막으로 한라산 백록담

6) 거인설화의 행위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58-91쪽 볼 것.

동쪽에 있는 물장오리에 가서 들어서보았는데, 여기는 창 터진 물이라고 해서 밑이 없는 깊은 물이라 그만 풍덩 빠져서 죽었다고 한다.(장주근, 15쪽)

이 이야기는 현용준 채록본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자기의 속곳 한 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한 이 거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랑거리는 역설적으로 그 큰 키이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이 여신이 자기가 만든 제주섬에서 죽어간다는 것이다.

한라산을 배고 드러누워 물장난을 치던 여신이 한라산보다도 낮은 오름에 있는 물장오리 호수에 빠져서는 살아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여신이 어느새 그 거대한 위용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만든 섬에서 놀다가 어처구니없는 키 자랑 끝에 오름 꼭대기의 호수에 빠져죽는다는 것은 이 여신이 자신이 만든 세계와 완전히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새겨 읽으면 설문대 할망을 죽이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창 터진 물’이니 ‘밑이 없는 깊은 물’이란 무한을 뜻한다. 설문대 할망은 거대한 여신이었지만 스스로 만든 세계에 투입한 하나의 호수 구멍, 무한이라는 구멍 앞에서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 무한의 개념 앞에서 할망은 소멸한다. 그는 영원한 신은 아니었던 것이다.

설문대 할망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어땠든, 할망은 산정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전한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허전하다. 이 창조의 여신이 그렇게 혼자 조용히 놀다가 쓸쓸히 가버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쉬움이 생긴다. 물장오리의 이야기는 꼭 설문대 할망이 거기서 죽었다기보다는 키가 큰 설문대 할망도 빠질 만큼 물이 깊었다는 하나의 비유나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믿고 싶어질 정도다. 그런데 마침 설문대 할망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으로 오백장군의 전설이 남아있다.

3-2. 오백장군 전설

옛날 설문대 할망이라는 키가 큰 할머니가 있었다. 설문대 신화는 이렇

게 시작된다. 설문대 할망은 이 땅이 시작될 때 나타나 제주섬을 만들고 제주섬에서 죽어간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 신화는 모노드라마로 끝나는 것 같다. 그런데 한라산의 영실기암과 얽힌 오백장군 전설을 보면 설문대 할망에게 자식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심지어 설문대 할망이 있었다는 민담도 있다. 한 마디로 이 거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전혀 새로운 발견이다.

오백장군 전설은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는데, 채록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동안의 채록들을 정리하면 대충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설문대 할망에게는 오백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식구가 너무 많아서 늘 넉넉한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다. 어느 날 설문대 할망은 자식들에게 먹일 죽을 커다란 솥에다 끓이고 있었다. 그런데 커다란 솥전에 올라가서 가래로 죽을 짓다가 발을 헛디더 그만 펄펄 끓는 죽 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 저녁에 돌아온 오백 형제들은 앞 다투어 죽을 먹으며 “오늘은 유난히 맛이 좋다”고 아우성이었다. 그런데 차례를 기다리던 막내아들만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죽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아나나 다를까 죽솥 밑바닥에서 커다란 뼈들이 나오자 오백장군들은 그제서야 어머니가 죽 솥에 빠져 죽었음을 알게 되었다. 막내아들은 “어머니의 살을 먹은 형제들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며 서귀포 삼매봉 앞바다로 내려가서 슬피 울다가 <외돌괴> 바위가 되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다 지쳐 몸이 굳어 바위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 바위들을 <오백장군> 또는 <오백나한>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한라산 영실의 영실기암을 가리킨다. 영실의 기기묘묘한 바위들은 <오백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막내가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바위가 4백 99개밖에 안된다고 한다.

이 전설은 현용준의 채록이나 진성기의 채록에 들어 있지만 설문대 할망의 신화와는 별개로 떼어놓고 있다. 그것은 한라산의 영실과 관련된 전설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1976년에 나온 진성기의 《제주도 민담》에도 들어있지 않은 ‘오백장군’ 전설이 같은 이의 《제주도 전

설》(1992년 판)에는 들어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1958년에 채록되었다는 그 이야기에는 엉뚱하게도 죽술에 빠져죽은 것은 설문대 할망이 아니라 오백장군의 아버지로 나온다⁷⁾. 그렇다면 설문대 할망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설문대 할으방’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다. 아무튼 설문대 할망은 키 자락을 하다가 물장오리 호수에 빠져 죽은 것으로 되어있어서 죽술에 빠져죽은 것은 설문대 할망 아니라 오백장군의 아버지로 하여 아귀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설문대 할망에게 오백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영실기암 전설이 합리적인 틀을 갖추려면 아버지도 있어야 했던 것이다. 한편 고대경은 위 이야기에 앞서 설문대 부부의 존재를 상정한 후 그에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결국 설문대 가족의 이야기로 신화가 확대되고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놓기라는 설문대 전설은 창조신 설문대의 불완전성을 잘 보여주었다. 설문대는 무언가 하나가 결핍된 존재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결핍을 보완하려면 새로운 존재가 필요해진다. 단독자로서의 설문대와 거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설문대는 위상이 다르다. 천지창조의 신화는 단독자로서의 설문대 할망의 이야기이다. 이때 설문대 할망은 비록 할망(할머니)이라는 호칭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의 창조행위에 어떤 여성적 생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가 창조하는 것은 산과 오름과 섬이다. 거기서 생기발랄한 생명의 잉태나 창조의 역동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급기야 그가 창조한 세계가 불완전하다는 불신을 받기에 이르는 것이다.

오백장군 전설의 의의는 단독자로서의 창조신 설문대 할망에게 자식들이 많았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다시 거신의 위대함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오백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가 원시시대의 미덕인 다산성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의 불완전함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 자식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지는 못해서 급기야 자기 자신을 자식들의 먹이로 바치고 마는 것이다.

7) 진성기, 《제주도 전설》, 26-27쪽.

설문대 할망에게 드러나는 이런 궁핍은 철학적 결여이면서 성적 결핍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계사회의 원시성이 고수되는 한 설문대 할망이 오백 명의 자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자는 없었을 것이다. 위대한 신은 본래 그 자체로 생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성생식이나 양성구유의 존재들이 창조의 신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하지만 설문대 할망을 여성적 존재로 보는 한 성적 결핍과 생산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성적 존재가 나타나 설문대 할망의 결핍을 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대 할망의 존재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계사회의 문화가 한 차례 위기를 맞이했음을 뜻한다.

3-3. 설문대 할망

진성기는 《제주도 전설》에서 설문대 할망에 대한 전설을 실으면서 ‘오백장군의 아버지’를 언급한다. 설문대 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져죽었다는 전설을 깨지 않으려면 죽술에 빠져죽은 신은 설문대 할망이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백장군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래서 유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아직 이름이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진성기가 제주 방언 그래도 채록한 《제주도 민담》에는 이상하게도 설문대 할망에 대한 전설이 없는 대신 뜻밖에도 ‘설문대 할망’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거신 설문대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표준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다.

옛날 설문대 시절에 설문대 할망이 있었습니다. 이 할망은 키는 하늘을 꿰뚫어서 한라산과 같고, 가운데늬는 갈대 세 길이는 하였습니다. 키가 크고 가운데 물건이 길어놓으니 부인을 얻지 못하여 늘 걱정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삼월 보름 물때 날이었는데, 소문에 “설문대 할망이 바닷가에 내려가서 해산물을 잡고 있더라” 하니 설문대 할망을 찾아 가서는 “나는 설문대 할망인데 그대가 내 배필이 될 만 하기에 찾아 왔으니 어서 입을 뻐시오” 하

였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으로 삼을 만 하다고 보여서 “그러면 어서 바닷고기나 실컷 한번 먹여주겠다고 하면 허락을 하지요” 하니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해서 할망과 할으방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윤삼월 열엿새날 설문대 할망은 아들 오백 형제를 낳으니 사뭇 입이 깔깔하여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할으방은 할망 보고 “그럼 어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자”하여 둘은 바다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할으방은 할망더러 “나는 저쪽으로 가서 고기를 쫓을 터이니, 할망은 칠팔 난고지(지명)의 물속에 가서 속곳을 벗고 하문을 열고 앉아있으시게”하여 놓고는 할으방은 소섬(우도) 동오기로 가서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을 내모는데, 가운데 물건으로 바위굴속마다 찌르면서 이 구멍 저 구멍 들썩들썩 쑤셔가니 바닷고기들이 한 순간에 모두 설문대 할망의 하문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설문대 할망은 고기들이 거의 모두 하문으로 들어올 만 한니까 하문을 단단히 잠가서 냇기 하목장(지명) 들판으로 가서 퍼 싸놓으니 온 섬 고기들이 열 섬 열 말이나 되었습니다. 설문대 할망과 설문대 할으방은 이 고기들을 한 끼에 모두 끓여 먹어서 삼천삼백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⁸⁾

이 이야기는 설문대 할으방을 주인공으로 삼고 설문대 할망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진성기가 채록한 이 이야기가 《제주도 전설》에는 없고 《제주도 민담》에만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현용준이 설문대 할망 신화를 《제주도 신화》로 분류하지 않고 《제주도 전설》에 담은 것과 유사한 분류의 동기가 있었던 듯하다. 설문대 할으방 설화는 그야말로 신화로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고 그보다 못한 전설이나 민담으로 격하되어 처리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고대경은 《신들의 고향》에서 이상의 설화들을 모두 종합하여 설문대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 물론 위의 민담도 짧게 삽입하고 있다.

신화의 구분은 이야기의 신성성과 분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먼저, 설문대 할망의 이야기는 굿 등의 종교의례에 나타나지 않고 그밖의 신앙의 형태로도 나타난 흔적이 없어서 신화가 아닌 것으로 보통 분류되어 왔

8) 진정기, 《제주도 민담》, 85-87쪽.

다. 그래도 그것은 제주의 자연이나 지형과 관련된 전설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까닭으로 전설로는 대접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설문대 할망의 경우는 지형전설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널리 분포된 것도 아니어서 소소한 민담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신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대 할망의 설화도 합리적인 요구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대의 인식이기는 하지만 할망이 있었다면 할망도 있었을 것이라던가, 아니면 그 반대도 성립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요구가 생겨난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것을 보더라도, ‘할망이 있으면 할망도 있다’는 전제아래 할망이 할망방을 위해 거대한 하문으로 뗏돼지, 노루를 잡아 함께 고기를 먹었다고 전하고 있다⁹⁾. 또 다른 구술에서도 할망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¹⁰⁾.

그런데 위에 제시한 민담은 여러 가지 고찰거리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강력한 남성신과 여성신의 성적 결합행위라는 의미와 풍부한 생산성이라는 의미가 그것이다. 우선 설문대 할망방의 등장으로 설문대 할망은 풍부한 생산성을 가진 여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두 거신이 힘을 합쳐 많은 고기를 잡음으로써 그간 궁핍한 얘기들로 가득했던 설문대 신화에 풍부한 생산성의 의미가 새롭게 첨가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거대한 두신의 강력한 성적 결합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문대 할망은 설문대 할망방과의 이러한 결합을 통하여 삼천삼백 년이나 장수하게 되는 것이다. 홀로 제주섬을 창조하여 아이처럼 놀다가 자신이 만든 구멍에 빠져 초라하게 죽어갔던 거신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고 하겠다.

세계 창조의 원리가 단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할망의 창조행위는 단순하였다. 그가 창조한 세계는 제주섬의 이런저런 지형들, 즉 한라산과 오름과 섬과 바위들이었다. 그때는 제주섬의 근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기는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2》, 710-714쪽(김영돈, 고재환 조사, 송기조 구술, 남, 74세).

1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200-202쪽(현용준, 김영돈 조사, 안용인 구술, 남, 74세).

하였지만 만개한 생명의 기운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설문대 할망이 설문대 할으방을 만나고, 오백장군을 자식으로 거느려 기르는 순간 그 신화는 또 한번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설문대 신화의 주요한 상징인 구멍의 의미도 더 복잡해진다.

설문대 할망의 1차신화에서 설문대는 물장오리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것은 '창터진 물', 즉 무한 앞에서 한 순간에 소멸하는 죽음이다. 그러나 오백장군 전설에서의 죽음은 죽기는 죽지만 자신이 낳은 자손들을 먹여 살리는 죽음이다. 이때 할망이 빠지는 죽술은 무한의 구멍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끊고 있는 또 다른 구멍이다. 그리고 설문대 할으방과의 고기잡이 민담에서 할망의 구멍(하문)은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한 구멍이다. 설문대 할망 자신이 가진 여성적 구멍은 남성과의 결합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는 구멍이 된 것이다. 이제 할망은 자신의 구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구멍 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에서 이끌어낸 에너지로 삼천삼백 년을 살게 되는 것이다.

3-4. 송당 장수

설문대 할망의 신화는 단성 생식의 신화와 양성 생식의 신화로 나누어지고 있다. 설문대 할망의 제주섬 창조의 신화는 단성 생식에 속한다. 거기에는 거대한 대지모신의 모습이 어른거리지만 존재의 결핍은 뚜렷해지고 그 불완전함 탓에 거신은 죽는다. 그러나 설문대 할으방이 등장하는 양성생식의 신화에서 설문대 할망은 자신의 결핍을 남성신의 존재를 통하여 완성시킨다. 그리고 제주섬의 모습도 훨씬 풍요로운 생산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거대한 성기가 암시하는 성적 생산성은 물론 단성생식의 신화에서도 얼핏 그 모습을 보인 적은 있다. 할망의 오름 줄기가 강하여 소섬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힘찬 오름 줄기에서 강력한 성적 생산성을 연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단성 생식의 단계이므로 소섬이 오름 줄기의 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사정은 우연적인 것으로 풀

이된다.

설문대 신화에서 설문대 할망의 이야기가 추가되는 것은 모계 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권력의 이동을 암시한다. 고기잡이는 아직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의존을 보여준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설문대 할망이 할망의 직능들을 차츰 빼앗아가게 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설문대 할망의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도 짧게 들어있다¹¹⁾. 이것 역시 설문대 할망의 거대한 하문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육상에서 일어난다. 한라산의 들짐승들인 멧돼지나 노루, 사슴 등이 할망의 하문 속으로 들어갔다가 잡혔다는 것이고, 그 오줌줄기가 한라산의 여러 내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채록 역시 희귀한 예에 속한다. 그런데 진성기의 민담집에는 눈여겨볼만한 또 다른 거신설화가 들어있다. 그것은 ‘송당 장수’, 즉 송당 마을의 장수이야기이다. 진성기의 채록을 다시 표준어로 바꾸어서 옮겨보겠다.

옛날 송당에 송당 장수라고 하는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송당 장수는 키는 한라산과 같고 몸뚱이는 물영아리 오름만큼 했습니다. 식성은 한 끼니에 닷 섬 닷 말 어치씩 먹었습니다. 이 장수가 똥을 싸면 그 크기가 망오름만큼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소 찾으러 다니다가 오름인가보다 올라서면 그 사람은 움쭉 빠져서 병거지 꼭지만 까닥까닥 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몰라서 올라서면 빠지고 저 사람도 몰라서 올라서면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자 제주 삼읍 백성들이 공론을 하고 송당 장수한테 “똥은 한 군데만 싸지 말고 여러 곳에 조금씩 싸 주세요”하고 사정하였습니다. 그 뒤로 송당 장수가 제주 넓은 들판에 여기저기 조금씩 이쪽저쪽 돌아다니면서 싸버린 똥무더기들이 마르니까 동산도 되고 오름도 되고 하였습니다¹²⁾.

송당 장수의 키가 한라산만큼 했다면 설문대 할망의 크기만큼은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거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일화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200-202쪽, 《9-2》, 710-714쪽.

12) 진성기, 《제주도 민담》, 94-95쪽.

도 아직 알려진 바 없는 이 거인이 한 일이라고는 단지 먹고 똥을 싸다는 것밖에 없다. 고대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자면 그것은 풍부한 삶의 일차적 원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식과 배설이라는 이 자연의 원리가 여기서는 창조로 이어져 있다. 이런 자연순환의 원리는 신화적 사고에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제주섬의 오름을 거인인 송당 장수가 만들었다고 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놀라운 점으로 보이는데, 제주섬을 창조하고 그 오름을 만들었다는 설문대 신화의 가장 본질적인 창조의 위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대 할망도 아니라 송당 장수라는 초유의 거인이 설문대 할망과 창조의 업적을 두고 다투는 형국이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설문대 신화의 채록 중에도 할망이 수수범벅을 먹고 누운 똥이 오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다.¹³⁾ 하지만 송당 장수 설화는 새로운 거인담이라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 설화의 형식이 전설이든 민담이든 남성 거인 신화가 설문대를 보충하거나 대리하면서 등장했다는 것은 최초의 창조의 여신 설문대 할망의 신화가 부계신의 원리로 대체되고 있는 문명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송당 신화의 거신들

4-1. 셋송당의 신 세명주

제주섬을 창조한 설문대 할망의 신화는 제주도 전역에서 두루 전해진다고들 말한다. 제주섬 전체를 창조하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걸음을 옮기고 어디가에 걸터앉았다는 것은 제주섬의 창조자라도 당연한 활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록되어 전하는 이야기들을 포괄해서 보면 할망의 활동무대가 제주의 동부지역에 많이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력한 오줌줄기로 소섬을 만들었다든가, 성산일출봉에 등잔

13)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15쪽.

을 걸었다든가, 일출봉을 빨래바구니로 삼고 소섬을 빨래돌로 삼았다든가 하는 이야기 모두 동부의 앞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다. 설문대 할망의 등장과 함께 물고기 잡이를 하는 곳도 성산과 표선 일대의 바다이다. 게다가 설문대 할망의 위업을 가로채듯 등장하는 송당 장수 역시 동부의 내륙이다. 그렇다면 제주도 안에서 설문대 할망을 비롯한 거인설화의 발상지는 제주의 동부지역이 아닐까 추정하게 된다.

한편, 고대경은 기존에 채록된 설문대 할망 신화와 설문대 할망 전설을 종합하여 설문대 신화를 정리하면서 설문대 신화가 신당 본풀이로 남아있다고 적고 있다. 그는 표선면 표선리의 당신화에 “오백장군을 낳은 [세명주]가 표선리 [당께]로 내려와 [할망당]신이 되고 아들들도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신이 됐다”는 본풀이가 전한다고 적었다¹⁴⁾. 그러나 이런 보고는 신빙성을 얻기는 쉽지 않다. 표선리의 당신들은 대개 송당본향계열의 자손들인데, 아직 [당께 할망당]에 대한 민속학적 보고는 없다. 제주도 전역의 신당본풀이를 정리한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이나 현용준의 조사에도 이런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보고는 충실한 민속학적 채록이라 할 수 없다.

설문대 신화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나 특정한 본풀이나 숭배하는 신당이 남아 있지는 않다. 따라서 설문대 할망이 신앙의 형태로 존숭의 대상이 되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 더욱이 거기에는 명칭의 문제까지 개입한다. 민속연구자들은 보통 송당본향본풀이의 서두에 등장하는 ‘세명주’를 ‘설문대’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당신의 원조인 송당 본향 본풀이는 보통 ‘웃손당 금백조, 셋손당 세명주, 알송당 소로소천국, 아들에게 열여덟, 딸에게 스물여덟, 손지방상 삼백 일흔 여덟’이라는 말로 서두가 개시되며 부모신인 금백조와 소천국의 좌정담을 풀이한 뒤, 혹은 때에 따라서는 생략한 뒤, 그 자손의 당신의 본풀이를 구술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문제는 웃송당 금백조, 셋송당 세명주 알송당 소로소천국이라고 세 신위를 불러들였으면서도 정작 셋송당 세명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

14) 고대경, 《신들의 고향》, 40쪽.

이 본풀이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명주가 누구인지, 왜 이름만 불려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지 기이한 일이다.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송당본향본풀이 속의 '세명주'가 설문대 할망과 동일한 신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주도신화의 수수께끼》에서 현용준은 <셋손당의 세명주는 어디 갔는가>¹⁵⁾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셋손당 세명주'라는 말이 뜻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 끼어든 것은 아니라는 추정 속에서 그도 설문대 전설을 떠올리고 있다. 구좌와 성산 일대에서는 설문대 할망(선문대 할망)이 '세명뒤', '설명지' 등으로 전승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송당본향본풀이의 '세명주'와 같은 명칭으로 보는 것이다.

제주의 옛 기록에 설문대나 세명주라는 거신이 살았다는 전설이나 신화의 기록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조선 영조 47년(1771년)에 제주유생 장한철이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난파당항 기록을 적은 《표해록》에 '선마선파(洗麻仙婆)'라는 한라산의 신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¹⁶⁾, 이것은 분명 설문대와 관련된 기록으로 보인다. 이 네 음절에서 뒤부분 선파(仙婆)라는 말은 '신선할머니'를 뜻하니 거신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신성한 할머니'를 뜻하고 있다. 더욱이 앞부분의 '선마(洗麻)'라는 말도 그 자음 구성이 'ㅅ - ㅁ'로서 '선-문', '설-문', '세-명' 등과 일치한다. 그 소리가 일정한 연속성이 있고 의미도 신선사상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설문대 할망의 뜻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에 선마고(洗麻姑)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그것 역시 '고(姑)'의 의미로 볼 때, '마고 할미' 등과 관련되지 않고 '선마 어멈'과 관련된 것이다. 즉 '마고'가 의미 있는 음절이기에 앞서 '선마'가 더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런 언급은 그동안 제주의 설문대 할망(혹은 선문대)과 육지의 마고 할미를 비교했던 고찰들에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주는 것 같다. '선마'라는 말은 그 두 할미 사이의 중간형태 이상인 것 같다.

15)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200-202쪽.

16) 장한철, 《표해록》, 75쪽.

장주근은 《표해록》의 ‘선마선과’가 진정한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표해록》의 맥락상 그렇게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적어도 그 할망은 제주사람들이 어디선가 위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한번쯤은 구원을 요청해 볼만한 존재로 일상에서 쉽게 떠오르는 존재였음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한편, 향토역사모임인 ‘담수계(淡水契)’에서 간행한 《증보탐라지》에도 ‘설만두고(雪慢頭姑)’로 표기하였다. 송당리 주민으로 <리참고문>을 작성한 채희주는 세명주의 한자 표기를 설명주(說明主)로 보았다¹⁸⁾. 적어도 이들 전해지는 여러 개의 표기, ‘설문대, 선문대, 세명주, 설만두, 설명지, 세명뒤’ 등을 비교해보면 설문대 할망은 한자표기로 정착되지 않고 구전으로만 전해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민중의 전승에서 넓은 변이를 가진 설문대 할망의 명칭은 본풀이 속의 세명주와 동일한 대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용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도대체 셋손당의 세명주는 어디로 간 것일까? 현용준은 “셋손당의 신 세명주가 권능이 적어 널리 번지지 못하고 끝내는 전설적인 인물로 되어 이렇게 전승되는 것은 아닌가”¹⁹⁾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곰곰이 새겨볼 의문이다.

송당본향본풀이의 서두에 등장하는 신은 세명주를 포함하여 셋이 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명주가 생략되고 금백조와 소천국 둘만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세 신을 함께 불렀을 경우 송당 마을 전체로 보면 세 명의 신이 동거하는 꼴인데, 제주도 신당의 신앙에서 여러 신이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 신 사이의 관계 역시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세명주가 설문대 할망이라면 송당에는 한 명의 남신과 두 명의 여신이 동거하는 모양이 된다. 그리고 여러 신이 동거하자면 위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제주무속의

17)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16쪽.

18) 채희주, <리참고문>, 이 기록은 송당본향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확증하기는 어려우나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김진하의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에서 소개한 바 있다.

19)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202쪽.

표현을 빌리자면 “누가 바람 위편으로 서는가”가 문제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남신 소천국과 여신 금백조는 혼인했다가 이혼했는데, 여신 금백조가 윗자리를 차지한다. 따라서 한 남신과 두 여신이 동거하게 되었을 경우 두 여신 사이에서도 반드시 위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명주와 금백조 사이의 위계나 그 밖의 내용이 전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어쩌면 세명주는 금백조와의 대결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짐작해볼 수도 있다.

송당 신화에 나타나는 세 명의 신은 뚜렷하게 문명의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명주(설문대)는 제주섬을 만든 창조신이다. 그 다음은 수렵의 신 소천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경문명을 상징하는 여신 금백조가 등장한다. 소천국은 외부에서 왔다고 전하는 본풀이는 없지도 않지만 대개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제주섬에서 났다고 하는 본풀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금백조가 외부에서 도래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⁰⁾.

수렵의 신 소천국은 새로운 문명의 여신인 금백조와 혼인하여 농경기술을 익히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여 이혼하게 된다. 그리고 본래의 수렵생활로 돌아가 버린다. 물론 어느 정도 공존의 여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식성 좋은 남신은 여신의 기세에 눌려 바람 아래로 내려선다. 즉 금백조의 위세에 눌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설문대 할망이 거기에 있었다면 이 원시적인 창조의 여신은 농경문명의 신 앞에서는 그야말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설문대 할망의 완벽한 패배는 이미 기술적인 면에서 판결이 난 것이다. 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에 급급했던 이 거신 앞에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 쌀밥을 해먹는 놀라운 신이 나타난 것이다. 이 완벽한 패배는 그에 대한 신앙이나 본풀이마저 완전히 소멸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송당본향본풀이에는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의 신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은 금백조와 이혼한 소천국이 수렵생활로 다시 돌아간 이후의 행적과 관련되어 있다.

20) 현용준, 같은 책, 158쪽.

4-2. 오백장군의 딸

금백조와 살림을 나는 소천국은 수렵생활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남신은 다시 재혼을 한다. 안사인 심방이 구연한 본풀이를 따른 현용준 본이나 장주근 본을 보면 소천국은 '정동칼챗딸'을 만나 첩으로 삼고 새살림을 꾸렸다고 한다²¹⁾. 이 정체불명의 '정동칼챗딸'이 어떤 성격의 여성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장주근이 채록한 고봉선 구송본(1957년 채록)에서는 '오백장군 딸님애기'와 재혼했다고 쓰고 있다²²⁾. 고봉선 심방은 송당에서 대대로 심방을 대물림한 큰심방으로 당대 동부지역 최고권위의 심방이었다. 또한 소천국, 금백조의 신화와 그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 검홀 문국성의 신화가 함께 들어간 송당 본풀이를 채록한 진성기 본(이상문 구연, 1959년 채록)역시 소천국이 '오백장군 오백서 딸'을 첩으로 삼아 살아 간다고 되어 있다²³⁾. 그리고 첫째 아들 문국성이 어머니 소천국과 살다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소천국에게 밍게 보여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 문국성을 무쇠석함에 넣고 바다에 빠뜨리도록 조언하는 것도 '오백장군 오백서 딸'이다. 송당 신화의 세명주가 설문대 할망과 동일하고 소천국이 첩으로 삼은 '오백장군 따님애기', 즉 '오백장군 오백서의 딸'이 그야말로 한라산 영실 오백장군의 딸이라면 소천국은 한라산의 수렵생활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된다. 마치 이것을 실제의 인척관계처럼 본다면 소천국은 세명주(설문대 할망)의 손녀와 결혼하는 셈이다.

신화 속의 혼인이 문명간의 교류와 권력 양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수렵문명의 신 소천국은 농경문명과의 관계에서 뒷자리를 차지하면서 다시 더 원시적인 신의 자손과 교류하는 것이 된다. 송당 신화의 서두에서 호명되면서도 그 내력이 전하지 않는 설문대 할망의 영향력은 소천국을 매개로 간신히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136쪽.

2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215쪽.

23)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411쪽.

한편, 송당본향본풀이 속에 남아있는 설문대와 오백장군의 흔적에 더하여 송당에 남은 설문대 할망의 전설을 보게 되는 것도 흥미롭다. 아직 학계에 알려진 바는 없으나, 송당 마을에는 ‘세 덕 아진 밭’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은 설문대 할망이 술을 앗혔던 곳이라고 전하고 있다. ‘세 덕’이란 술을 받치는 세 개의 받침돌을 뜻하고 ‘아진 밭’이란 ‘앗은 밭’을 뜻한다. 또 한편으로 그 곳은 ‘선돌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거석문화의 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돌(menhir)이 서 있는 곳이라는 지명과 ‘세 덕 아진 밭’이라는 설문대 전설이 함께 전한다는 것은 이곳이 선사문화의 한 흔적을 간직한 곳처럼 느껴진다. 현재는 도로 확장공사로 망실되어 있지만 현재 주민들은 여전히 그 지명과 전설을 또렷하게 전하고 있으니 이점 역시 송당을 설문대 신화와 연관지어 준다고 하겠다²⁴⁾.

4-3. 거신 소천국

제주도 당신의 원조라고 하는 송당 신화는 소천국과 금백조의 결합과 불화, 그리고 금백조의 자손들이 각 마을로 퍼져나가는 좌정담 등 두 개의 신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당신의 원조로 금백조가 자리 잡은 과정이 사실은 수렵문화와 농경문화 사이의 첨예한 갈등과 불안한 공존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보면²⁵⁾ 송당 신화는 제주섬의 문명사의 한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천국을 중심으로 보면 더 고대적인 문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다. 금백조가 새로운 여신으로 등극하면서 그전에 위세를 떨쳤던 설문대 여신은 완전히 부정되고 그 본풀이는 금기시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금지의 결과 설문대 할망은

24) 필자는 2006년 음력 8월 13일에 송당 마을에서 주민들로부터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웃송당의 광산김씨 집안 제사에서 조사한 것으로 그 자리에는 송당본향의 상단궐을 맡아온 김호중 씨(송당본향보존회장)도 참석하였다. 한편 이 내용은 송당리 출신인 휴당 채희주의 <리참고문>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는 1990년대에 송당리 노인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송당리 마을의 역사와 신당의 유래 등을 조사하여 <리참고문>을 작성하였다.

25)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159쪽.

다만 전설로만 그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송당 신화에서 거신 설문대의 흔적이 ‘세명주’와 ‘오백장군의 딸’로 남아있는 것은 남신 소천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소천국과 오백장군의 딸과의 재혼은 소천국이 설문대 할망의 손자사위가 되는 셈이므로 소천국은 거신족(혹은 거인족)과 혼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천국에게 거신의 풍모가 남아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본풀이에 따르면 소천국은 엄청난 대식이었고 장사였다. 금백조와의 불화의 원인도 사실은 그 대식성과 관련되어 있다. 소천국은 소를 두 마리나 잡아먹고 나서는 배로 쟁기를 밀어 밭을 갈았다. 소천국의 모습에서 거신의 풍모는 풍부하다. 금백조에게 거신의 풍모가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조해보면 이 점은 새삼 두드러진다.

이런 저런 흔적으로 남은 제주의 신화와 민담 등을 종합해보면 제주 신화에서 거신의 출현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면서 질서정연하다. 먼저 창조 여신 설문대의 위세가 축소되면서 설문대 할망이 출현하고, 할망의 힘을 보충하는 듯싶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송당 장수’가 출현하여 설문대 할망의 위업을 가로채는 과정이 보인다. 그리고 송당본풀이에서는 설문대(세명주)나 오백장군의 딸 뿐만 아니라 소천국에게 이런 거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송당본향본풀이, 즉 송당 신화는 이런 측면에서 고대의 거신신화와 농경신의 신화를 이어주는 매개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 전개된 거신들의 출현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신의 발생계보가 그려진다.

- | | |
|--------------------------------|------|
| 1단계 : 설문대 할망 - 거신 - 창조여신 | - 여신 |
| 2단계 : 오백장군 - (거신) - 다산과 결핍 | |
| 설문대 할망 - 거신 - 성의 생산성 | - 남신 |
| 송당장수 - (거신) - 대식성과 배설 | - 남신 |
| 3단계 : 소천국 - 거신 - 수렵의 신 | - 남신 |
| 4단계 : 금백조 - (왕) - 농경의 신(국가의 신) | - 여신 |

설문대 할망은 창조의 여신으로 제주섬의 문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후로 설문대 할망과 송당장수 등 남성 거신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태초의 거신들은 본향본풀이에서는 가까스로 흔적만 남긴 채 소멸해간다. 기실 태초의 거신들은 자연물 자체이거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신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문명이 전개될수록 거신들은 위축되고 그 거인의 풍모를 상실해간다. 제주도 거인 설화의 마지막 모습은 송당 신화 속의 수렵의 신 소천국에게 남게 된다.

송당 신화는 거신 숭배의 소멸과 본격적인 문명의 신의 등장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송당 신화 속에 흔적으로 남은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의 딸은 새롭고 강력한 문명에 의해 신앙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결혼과 이혼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준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송당 신화의 서두에 나오는 “웃손당 금백조,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 소천국, 아들에게 열여덟, 딸에게 스물여덟, 손지방상 삼백일흔여덟”이라는 구송이 중앙집권화된 위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신화의 구조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대목은 국가(개념)의 탄생을 알리는 강력한 지표이다.

송당을 중심으로 그 자손들이 전도로 퍼져나가 신당에 좌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최고 권력가와 그에 종속된 지방이라는 국가제도와 동일한 구조를 보여준다. 물론 이 말은 송당에 실질적으로 어떤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송당 신화의 권위가 현실의 권력구조처럼 드러나고 그의 자손들의 순서가 차례로 주어질 때 거기서 작동하는 사고는 국가제도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송당 신화의 구조가 국가개념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탐라의 개국신화와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하지만 본풀이가 전하지 않고 권력분점의 형태로만 나타난 삼을라 신화에 비해 송당 신화는 자손과 손자들에까지 위계화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국가제도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농경의 시작이 국가의 탄생을 야기했다는 일반적인 문명사의 상식과도 부합한다.

5. 결론

송당 신화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제주문명의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거인설화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개념)의 탄생과 함께 거인 설화는 소멸함을 보여준다. 거인 소천국은 금백조와 혼인하지만 그가 내세운 거인적 풍모는 금백조에게는 보잘것없는 야만적 행위로 비칠 뿐이다. 그리고 권력은 온톤 금백조에게 넘어가고 그는 아랫자리로 밀려난다. 신앙의 형태도 자연적 거대성이 아니라 기술적인 우월성으로 바뀐다. 신의 위세도 거대한 신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가치로 평가를 난다.

국가개념 속에서 거신 설화는 왜소화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거신 설화가 어떻게 변형되는지는 송당 신화의 자손신화에서도 볼 수 있다. 송당 신화에서 자손 신화, 즉 2차 신화의 원형은 첫째 아들 검홀 문곡성의 이야기인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곡성은 소천국과 금백조에게서 쫓겨나 무쇠석함에 담겨 바다로 버려진다. 그러나 문곡성은 용궁에서 처를 얻고 강남천자국에서 무공을 떨치는 용맹한 장수가 되어 위세등등하게 제주로 귀환하게 된다. 그런데 거대한 소천국에게서 밀려난 새로운 남신 문곡성에게는 더 이상 고대 거신족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국가의 탄생 속에서 거대한 신의 위용은 용맹한 장수의 모습으로 변용된다. 이제 더 이상 거신이 머물 곳은 없어진다. 달리 말하면 거인족은 국가의 탄생과 함께 소멸하는데, 소멸의 이유는 그 존재가 반국가적이기 때문이다. 거신들은 민중영웅이 되기는 하지만 왕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국가의 탄생 이후의 거신은 반국가적 인물로 위협시된다. 거인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민중영웅은 반역의 모함을 받게 된다. 이런 민중영웅의 억압은 날개달린 아기장수 설화나 좌절된 거구의 장수들에게서 그 끈질긴 모습을 남기고 있다.

어쩌면 이런 거인설화나 좌절된 민중영웅의 설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국가제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자연적인 상태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억압이 없는 자연적 상태로 회귀하고자 욕망

을 간직하고 있다. 설문대 할망과 같은 거대한 대지모신(땅-어머니)의 품으로 회귀하고 싶은 것이다. 대지모신은 정치권력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하늘-아버지와 같은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체계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은 국가(정치)의 이름으로 조직화되고 제도화된다. 거신들은 자연 상태에 살기를 즐긴다. 자연 상태 그 자체를 인격화하는 인간의 상상력은 조직화된 국가에서는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송당 신화에서는 여신 금백조가 남신 소천국보다 더 가부장적인 권위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 신은 비록 여신이지만 아들신들을 각지의 신당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신이 남성적 권력의 중심을 차지한다. 송당 신화의 소천국은 이런 경계에 있는 거신 설화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핵심어: 설문대 할망, 설문대 할으방, 송당 장수, 소천국, 금백조, 오백장군 딸애기

<참고문헌>

- 고대경, 《신들의 고향》, 증명, 1997.
김진하,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2006.
김진하,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 제30호, 2007.
송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진성기, 《제주도 민담》, 제주민속연구소, 1976.
_____, 《제주도 전설》, 백록, 1992.
_____,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_____,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장한철, 《표해록》(정병욱 옮김), 범우사, 1979.

- 채희주, <리참고문>(미간행 초록).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초판 1972).
- _____,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초판 1972).
- _____,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북제주군 편》, 1983.
-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시 편》, 1983.
-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남제주군 편》, 1983.

<Abstract>

Seolmundae Halmang myths and their transformations into the myth of Song-Dang

Kim Jin-ha

The Goddess Seolmundae Halmang in Jeju island is well known to be the creator of Halla mountain, the Orums (small mountains) and the surrounding islands. In general in Jeju folklore she is believed to be drowned to death at the profound lake on a Orum. But There are several tales which have different story about her death. And there are also some tales about her husband Seolmundae Harubang.

The folklore of Seolmundae Halmang is not clearly fixed. The

existence of her husband modifies some aspects of the myths related with her. The appearance of the huge God changes the picture of the world. Not only Seolmundae Harubang, but also another creator of Orums exists. The Song-Dang Jang-sou is a giant. He has a bowel movement here and there in Jeju island which become the Orums.

However, after the period of the Creator and that of the Giants, new cultures have come to Jeju isla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myths of the colossal Goddess are continued in the myth of Song-Dang village which has the oldest sanctuary of the three grand gods, Kumbaikjo, Semeunjo(Seolmundae), Sochunguk. In Song-Dang village, there are many histories and relics about the giants. The Goddess Semeunjo(Seolmundae), her granddaughter, and the gigantic male god Sochunguk have the fixed roles in Song-Dang myth. However, all the gigantic gods are at last defeated by the goddess Kumbaikjo who represents the new civilization.

- Keywords: Seolmundae Halmang, Seolmundae Harubang, Song-Dang Jang-sou, Sochunguk, Kumbaikjo, Seolmundae's granddaughter